

그르노블大學의 特性

禹 英 煥

(檀國大 經濟學科)

그르노블大學의 特性

프랑스의 大學制度를 전반에 걸쳐서 특징적으로 소개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대학을 다른 프랑스 대학과 구별하여 相異點들을 찾아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첫째 이유로, 프랑스는 국가 예산의 14~16%를 대학에 투자할 정도로 國立大學 中心體制이어서 개개의 대학이 他大學이 갖지 않은 특성을 의식적으로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부분적인 예외로는 新敎神學大學의 경우와 같은 私立單科大學이 있으며, 프랑스 北部에 카톨릭 제단에서 운영하는 綜合大學이 사립대학의 특성을 가진다는 취지에 따라 설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1년에 우리 화폐로 10,000원이 약간 넘는 등록금을 납부할 정도이고 보면, 私立大學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사립대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私立大學이라 하여도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할 정도로 국가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개개의 大學들이 특성이 결여되어 있는 두번째 이유는 大學의 입학과 진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입학제도를 예로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예비고시에 해당하는 '비카로레이(Baccalauréat)'가 있는데 이에 합격하면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 후에도 1학년

학점을 취득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대학에 있는 같은 과의 2학년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환경으로 말미암아 동급생간에도 동창이라는 관념이 매우 희박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는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의 수준을 자연스럽게 평준화시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그르노블(Grenoble)대학도 다른 대학과 같이 2개의 분교(Chambéry, Valence)—이곳에서는 1,2학년 과정만을 마친다—가 있으나 수준의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은 프랑스가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현 체제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프랑스 대학들의 이와 같은 '同質化現象'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뒤에서 밝히겠지만, '大學敎育의 大衆化' 추세 또한 대학교육의 전통적 형태를 고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인은 대학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뚜렷이 하였으며, 특히 이 글의 주제인 그르노블대학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순수 과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대학들은 應用科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배학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어떤 대학도 시에서는 전통을 존중하여 應用科學보다는 純粹科學의 중요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

른 한편에서는 應用科學을 우선시하려는 견해에 따라 교육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견해는 프랑스인들을 保守와 進歩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방향은 대학 교육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1968년에 개편된 교육제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대학들간에 異質化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르노블 대학은 이러한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아갔다(실험대학으로 허가되어 다른 프랑스 대학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즉 대학의 학문을 純粹, 應用科學으로 양분하면서 동시에 두 학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純粹科學大學인 文科, 法科大學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중세 이래 계속 발전하여 프랑스의 다른 대학에 못지 않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도시의 위치가 이태리와 프랑스의 접경에 놓여 있어 학문의 傳播에 주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이를 계승하여 純粹科學大學인 ‘유니벨시테(Université)’는 학술성을 위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應用科學大學인 ‘그랑데꼴(Grandes écoles)’은 교육제도의 개편 후 분리되어 서서히 그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 철저한 專門化가 시도되었으며, 그르노블대학이 공업도시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 産學協同을 추진하여 양적·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좀더 살펴보면, 그르노블시는 알프스 기슭의 해발 350~4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업조건이 불리하여 겨우 목축업에 의존하는 이유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2차대전 후부터는 정채된 발전을 종식시키고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변화하게 된 이유로는 알프스 산맥의 큰 낙차를 이용해 수력발전을 일으켜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금속 공업과 전기화학 공업이 일어났으며 고도의 에너지 산업인 원자력 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재, 제지, 시멘트, 섬유, 식품 등의 공업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그르노블시의 공업 발전은 ‘그랑데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데, 그 첫째 이유로 ‘그랑데꼴’은 ‘유니벨시테’와는 달리 학문의 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과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응용을 위한 기초 이론 이외에는 관심이 적다. 이러한 사실은 상당 부분의 교과과정이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대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학년은 거의 수련과정으로 짜여져 있다는 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둘째 이유는 우수한 기업에서 ‘그랑데꼴’의 학생들을 장래 자기 기업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 한 실례는 대학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학문을 이윤 추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문을 양분시킨 이후 그르노블대학은 비대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는데, 이에 따라 1960년 중반 그르노블시의 중심가에 있었던 대학 본부는 5km 가량 떨어진 외곽도시인 생마르탱델리(Saint Martin d'Hérès)로 옮겨 갔다. 대학 캠퍼스는 도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대규모이며, 그 전경은 7,8월에도 흰 눈이 도곤히 덮여 있어 마치 알프스의 품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캠퍼스내에는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1/5이 외국인 학생들이다. 어떤 강의실은 프랑스의 대학이 아니라는 기분을 들게 할 때도 있다.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이 구석민권 지역의 학생들이며 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등록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소개된 그르노블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르노블대학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학문을 탐구하였으며(1968년의 교육개혁 이전), ‘유니벨시테’는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랑데꼴’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르노블大學의 舊教育制度

프랑스의 구 교육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에콜프리미엘(école primaire)’이라는 국민학교에 해당하

는 5년 과정을 마친 다음, '리세(lycée)'라는 7년제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간다. 리세의 7년제는 '쁘레파라시옹(Préparation)'이라 하여 우리의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바카로레아(baccalauréat)'의 합격을 위한 준비만이다. 프랑스에서는 '바카로레아'를 대단히 중시하며, 대학 입학시 교양과정과 입학시험은 요구하지 않는다 한다. 바카로레아의 시험 방식은 논술고사에 중점을 두는데, 20점 만점에 최저 12점 이상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바카로레아의 전 과목에 부과되는 口頭試驗을 면제시켜 주는 특전을 주고 있다. 바카로레아는 '세리(série)'라는 전공별로 구분되어 '세리'에 맞지 않는 學科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4종류로 나누어진다. 입학 후를 보면 특이하게 4년 동안의 학년에 관한 관념을 거의 느끼지 않는데, 왜냐하면 입학과 수강 신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등록을 하였을 때 바로 강의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한 뒤, 연구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담당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승낙을 얻어야만 신청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공식적인 시험 외에도 담당 교수가 요구하는 숙제와 토론이 추가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강 신청시 신청 과목수에 제한이 가해져 학사과정을 마치는 데에는 최소한 4년이 요구된다. 담당 교수의 수강 신청 승낙이 개별지도의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학생수는 제한되었으며, 철저한 지도로 인해 당시의 학사학위 취득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평에 의하면, 현재보다 교육수준은 높았고 내용 또한 알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교육제도는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었다는 단점의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점은 현대에 와서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었으며, 1960년대의 대학생의 급증으로 인해 등록된 학생이면서도 '수강 신청을 못한 학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즉 구 교육제도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학교육의 제도 수정은 불가피해져, 결국 1968년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교수에 의한 개인지도 방식에서 강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에 적응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대학교육이 저질화되었다고 개탄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혜택을 주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지지를 받았다. 이제 새로이 개편된 교육제도가 그르노블대학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기로 하자.

‘유니벨시테(Université)’에서의 純粹科學에 대한 研究

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4개였던 '세리'가 더 세분화되었다. 즉 세리 A는 文學, 세리 B는 法學, 세리 C는 經濟學·自然科學, 세리 D는 純粹自然科學, 세리 E는 精密科學, 세리 F는 工業系實業, 세리 G는 商業系實業으로 세분화되었다. '세리'가 전공을 거의 결정하여 주는 까닭에 합격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 예로 세리 A보다는 취업이 용이한 세리 C,D,E의 합격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바카로레아'에 관해서는 세리가 세분된 것 이외에는 구 학제와 다른 것은 별로 없다. 바카로레아의 합격 후에 純粹科學을 공부할 수 있는 '유니벨시테 드 그르노블(Université de Grenoble)'은 3개로 구분되는데 소속 대학의 이름들은 번호로 붙여진다.

그르노블 1: 自然科學, 醫學, 藥學

그르노블 2: 經濟學, 法學, 人文科學, 歷史, 藝術史, 都市學 등

그르노블 3: 文學, 語學

'그랑데콜'의 학생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3개 대학의 학생수는 그르노블시 인구의 10%를 차지한 정도이다. 이들의 80%는 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인데, 왜냐하면 純粹科學大學인 '유니벨시테'에서는 입학이 자유로운 대신에 1,2학년의 경우는 50~80%가 강제 탈락—교수의 의무조항—되기 때문이다(참고로 그르노블 의과대학의 경우 1학년에 등록한 학생수는 1,000명이지만,

2학년에 진급하는 학생수는 고작 25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3학년의 경우는 30% 정도가 탈락되고, 마지막 4학년에서는 10%가 최종적으로 낙오된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대학가에서는 1,2학년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심한 강제 탈락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공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들의 학업 방식은 암기 위주를 지양하고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로, 학점의 수가 적은 대신에 1과목에 긴 시험시간을 주어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필기시험이 부과되나, 매 과목에 대해 구술시험이 추가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구술시험의 성적이 적정선 이하인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성적까지 무효로 한다. 구술시험의 방법은 이미 출제된 몇 가지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교수 앞에서 선택하여 1~2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정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참조해 가면서 교수와의 직접 토론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구 학제의 장점인 개인지도 방식을 어느 정도 살리자는 의도로서, 다음 사실에서 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의 강의 형태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며 어떤 경우에는 한 강의실에 수 백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강하기도 하는데, 강의가 끝난 후 이 학생들은 다시 20~30명의 소강의로 재편성되어 조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트하보디리제(travaux dirigés)’라는 강의를 듣게 된다. 이는 교수에 의해서 강의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시험도 부과된다. 이러한 제도는 한편으로 학생들에게는 개인지도를 철저히 받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교들에게 강의할 기회를 부여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교수의 채용방식을 보면 자율적이면서도 중앙통제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석사를 마친 후에 일정 기간의 연구를 거치면 조교가 되어 강의·연구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연후에 교수위원회(일부 교수들만 참가)에서 발표된 논문을 위주로 자질을 평가받

아 전임강사가 될 수 있으며, 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교수까지는 승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문 심사권이 있는 부교수에의 승진은 일정 기간의 경력은 물론 ‘스공드테즈(Seconde thèse)’라는 제 2 박사논문(국가박사 취득 후에 발표함)이 필요하다.

위의 조건을 갖춘 조교수들만이 국가시험인 대학교수 시험 ‘아그레가시옹슈페리외(agrégation supérieure)’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여야만 승진이 가능하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은 다시 대학위원회에 의한 자율에 맡기게 된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에 맡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방식을 조화시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에 얽매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합격자의 수에 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자질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승진이 봉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일생을 조교수로 근무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운영 방식은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총·학장 및 학과장 등 보직교수는 자유선거에 의한 선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총·학장을 위한 선거시에는 조교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나 학과장 선거의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과장 선거에서 낙선된 교수가 곧바로 학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純粹科學大學인 ‘유니벨시테 드 그르노블(Université de Grenoble)’이 평가받을 만한 점은 그들이 전통을 끊임없이 계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철저히 보수적 교육을 견지하다가 이태리 접경에서 르네상스의 문화가 들어오자 이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잘 적응시켰다. 이와 같은 전례에 따라 실험문인 應用科學도 쉽게 포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유니벨시테’는 프랑스의 전통교육, 나아가서는 구주대륙의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상징이기도 하나 순수학문에 전념하다가 보니 두 가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첫째는 현실과 유리된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취업의 어려움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르노블대학

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랑데꼴’을 도입, 대학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른다.

‘그랑데꼴(Grandes écoles)’에서의 應用科學 研究

이곳에서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주로 應用科學인데, 그 중에서도 주로 自然科學이 중심이 되지만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地理學이나 產業美術도 포함된다. ‘그랑데꼴’의 교육 성격은 ‘유니벨시테’와 거의 정반대일 정도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 대학교육의 전통적인 자유 입학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대개의 경우는 應用科學 대학인 ‘그랑데꼴’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리 2학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에콜 드브레빠라시옹’에의 입학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사실은 이곳에 입학하는 것조차 경쟁이 치열하다. 물론, 입시를 위해서는 ‘바카로레아’의 ‘세리’에 맞게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학교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기초 학문에 몰두하면서 ‘그랑데꼴’의 합격을 위한 입학시험에 대비해야만 한다. ‘에콜 드브레빠라시옹’의 소정의 전 과정을 마친 자만이 ‘그랑데꼴’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나, 입학시험 또한 에콜 드브레빠라시옹의 입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랑데꼴’의 이수 과정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예비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면 5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그랑데꼴’은 ‘유니벨시테’와는 구별되어 입학 후의 탈락은 심하지 않은 것이 상례이며, 본질상 이곳에서는 학문의 산업에의 응용이 중시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석유를 정제하는 A라는 방법은 거의 100%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B라는 방법은 불순물의 제거율이 80%에 지나지 않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면 A보다는 B의 연구에 중점이 주어진다.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유니벨시테’에서 보기 힘들었던 대학간의 수준차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몇몇 ‘그랑데꼴’에는 수재들이 많이 모여, 다른 학교와의 차이는 상당하기도 하다. 입시의 존재와 전학의 불가능은 위의 상황을 둔화시키지 못하고, 학생들간에는 엘리트 의식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평가받은 ‘그랑데꼴’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랑데꼴’의 예를 들어보면,

- 그르노블 電氣化學·電氣冶金 工科大学(E·N·S·E·E·G)
- 그르노블 電子 工科大学(E·N·S·E·R·G)
- 그르노블 電子工藝, 物理工學 工科大学(E·N·S·E·G·P)
- 水力電氣 工科大学(E·N·S·H)
- 그르노블 電子計算·應用數學(E·N·S·I·P·A·G)
- 製紙 工科大学(E·F·P)
- 그르노블 商科大学(I·E·C·G)
- 상베리 商科大学(E·C·C)
- 그르노블 工科大学(E·P·G)

등과 같이 두각을 나타내고 발전한 대학들이 있다.

대학의 발전이 북부 알프스 지방의 공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르노블의 ‘그랑데꼴’은 수준 있는 대학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製紙 工科大学(E·F·P)은 이곳의 제지공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유일한 제지공업 관계의 대학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그랑데꼴’의 학생들은 입학시에 어느 정도 취업은 보장받고 있는 셈이 되며, 더욱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입학생 수를 이들의 졸업시 산업부분에서 수요되는 상황에 맞추어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커다란 특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수학문에 일생을 바칠 결심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그랑데꼴’에의 입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일부의 ‘그랑데꼴’에서는 영재교육을 행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인기 또한 대단하다. 반면에 ‘그랑데꼴’은 유니벨시테와는 달리 등록금이 요구된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랑데꼴’의 인기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르노블대학의 졸업생들은 프랑스의 국영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실무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兩分化된 그르노블大學이 남긴 結果

그르노블대학의 교육제도는 성격에 따라 학문(순수·응용)을 구분시켜서 相對學問의 영역을 존중하게 하자는 방식이다. 물론 2개의 학문을 대립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분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문화하자는 것이다. 전문화된 應用科學은 純粹學問을 위한 근거가 되고, 역으로 純粹學問의 기반 없이는 應用科學도 존립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상호 보완을 하자는 취지였다.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는 양 대학 모두 보장되어 있으나 학문의 권위를 가진 교수들은 순수학문을 선호함에 따라 ‘그랑테꼴’보다는 ‘유니벨시테’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유니벨시테’에서는 학문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에서 보아도 거의 절대 다수가 이곳에 등록하여 양적 중요성이 확인되며 그랑테꼴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르노블대학의 중심은 아직도 ‘유니벨시테’에 두고 있다. 이에 맞서 ‘그랑테꼴’은 인기 학문의 전문화에 기여하면서 수준 높은 학생들을 앞세워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양분화된 그르노블대학 교육은 구라파내에서 전통과 진보를, 그리고 학술 원리 추구와 학술의 실용화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교육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 양 대학은 대학 입학을 원하는 지원생들의 희망에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 양분된 상황으로 인하여, 두 개의 대학이 가진 단점이 동시에 두 배로 작용하는 심각성도 또한 있다.

먼저 純粹科學大學인 ‘유니벨시테’를 보면 소

수의 학생들만이 학문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까닭에 다수의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회의적인 것이 상례이다. 비대화된 대학교육은 그르노블대학이 국립인 이유로 더욱 감당하기 힘들어지는데,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막대한 장학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부모의 세금이 일정액 이하이던 나찌를 하지 않는 한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성에서는 ‘유니벨시테’의 입학시에 시험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심한 입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의 기초를 형성시켜 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라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그랑테꼴’의 일부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입시에 충실한 나머지 일반교양 실력이 부족하다 하여, 학교측은 1학년 기말고사 이전에 강의 없이 강제로 교양시험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나, ‘그랑테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문의 실제 적용에 집착하여 純粹科學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향이 자주 있다. 이곳에서의 학문이 空理空談에서 벗어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기업의 상업정책 내지 이윤성에 의지하여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축소시켜 학문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그르노블대학은 다른 프랑스의 대학들과 같이 국립이므로 개성 있는 발전을 기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학 제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원칙을 약간 수정하여 학문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